(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452-496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452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자료>

『새한글성경』 사용법 안내[1)]

— 경건, 목회, 선교 현장에서 —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1.1. 성경 사용법 안내의 필요성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생겨나고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예배와 교육의 중심에 성경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경건과 교회의 목회와 세계 선교의 교과서이자 지침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교회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지, 교회의 교육과 목회와 선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잘 사용하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에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의 각 분야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성서학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에서 각각 나름대로 성경 사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신학 전문가이

* Kirchliche Hochschule Berli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은퇴교수. dhpark52@gmail.com.

1) 본 원고는 2025년 12월 26일 새성동교회에서 개최된 제130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새한글성경과 한국교회의 창의적 성경 읽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에 앞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사용해 온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 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개척 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가로쓰기로 인쇄된 한글 신약전서를 사다 주셔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산골 교회를, 1990년대 전반에는 시골 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어서 목회자의 처지에서 또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2. 공인 번역본의 역사에 비추어 본『새한글』

선교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한글 성경이 출간되어 왔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단 연합 기관인 성서공회에서 초대한 여러 교단 학자들이 모여 함께 번역한 공인 번역본과 개인이나 개별 출판사에서 내놓은 비공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비공인 번역본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서 때때로 참고할 만하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예배, 목회, 교육, 선교 현장에서는 공인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초의 공인 번역본 성경은 1911년판『셩경젼셔』입니다. 흔히『구역』(舊譯)이라고 부릅니다. 이『구역』의 개정판이 1938년판『셩경 개역』입니다. 해방 후의 새 한글 맞춤법에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꾼 성경이 1961년판『성경전서 개역한글판』입니다. 보통은『개역한글』이라고 부릅니다.『개역한글』을 다시 개정한 것이 1998년판『성경전서 개역개정판』입니다. 줄여서『개역개정』이라 합니다. 지난 114년 동안『구역』과『개역』과『개역한글』과『개역개정』이 차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의 기본 경전이 되었습니다. 이 넷을 하나로 묶어 ‘『개역』 전통 성경’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 ‘『개역』 전통 성경’은 한국 전통의 구술체인 “-니라”/“-더라”로 번역되어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아 장년층과 노년층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신식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크게 달라지고 학교나 사회에서 문어체 종결형인 “-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출간된 공인 현대어 번역본으로 1977년판『공동번역 성서』와 1993년판『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개정판이 각각 1999년과 2001년에 나왔습니다.『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2004년부터『성경전서 새번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출간된『새한글성경』은 기본적으로 공인 현대어 번역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은 21세기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하여 번역된 성경입니다. 21세기는 급속히 발전된 전자 문명으로 미디어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계속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은 이전 사람들과 크게 다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밀려 들어와 한국어의 낱말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와 종결체와 표현 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표현도 많이 생겨났고, 이제는 거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힘들어진 낱말은 잘 소통되는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 상처를 주던 표현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외래어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적극 반영한 성경이 『새한글』입니다.

1.3. 성경 번역의 새로운 경향과 『새한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면서 세계 교회의 성경 번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 천 년대의 상황에 걸맞게,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전보다 더더욱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료도 곁들여 만듭니다.

『새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역과 의역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번역 방식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보다는 소통(communic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일치(formal correspondence)'와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가운데 어느 하나를 중시하기보다는 21세기 사람들에게도 막히지 않고 잘 통하도록 번역하려고 애씁니다. 이를테면 원문의 긴 문장은 여러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합니다. 새 시대 사람들이 쓰는 낱말이나 표현을 과감히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문의 어렵거나 어색한 부분을 그저 쉽게만, 술술 잘 읽히도록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색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문의 불편한 곳은 불편하게 번역하여 독자들 나름대로 그 불편함과 씨름하게 합니다.

1.4. 『새한글』에 대한 반응과 사용법 안내 얼개

이처럼 『새한글』이 이전의 여러 한글 성경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만큼, 『새한글』이 반갑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대체로 보아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연령층에 있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햇수가 짧을수록, 한국어를 아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는 한자 문화권에서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반가워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 믿어 온 기간이 길수록, 한자 문화권에 가까이 있을수록, 『새한글』을 오히려 낯설게 느끼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한글 성경을, 특히 '『개역』 전통 성경'을 여러모로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을 중심으로 『새한글』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에 나온 『새한글』을 개인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새한글』 경험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지 못한 것은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한글』을 소리 내어 읽는 다양한 방안(아래 2번), 『새한글』을 재생산하는 방안(아래 3번), 『새한글』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표현하는 다양한 방안(아래 4번), 교회 학교나 가정에서 『새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아래 5번),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에서 『새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아래 6번), 그밖에 『새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아래 7번)이 그 여섯 부분입니다.

2. 『새한글』을 소리 내어 읽는 다양한 방안

2.1. 『새한글』 자체에서 강조하는 "소리 내어 읽기"

성경은 원래 소리 내어 읽는 책입니다. 이 점이 『새한글』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16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 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 주려고 일어서셨다.

사도행전 8:30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 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31:11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여호와께서 고르시는 장소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이 가르침을 읽어 주도록 하십시오.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요.

열왕기하 22:10
사반 서기관은 임금에게 이어서 말했다. "책 한 권을 힐기야 제사장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임금 앞에서 소리 내어 읽었다.

느헤미야 8:3
그는 '물의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날이 밝을 때부터 한낮까지 그 두루마리 책을 소리 내어 읽었다.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있었다. 온 백성이 율법책 읽는 것을 귀담아들었다.

느헤미야 8:8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들려주고는 바로바로 풀이해 주었다. 알아듣도록 해 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읽어 주는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

느헤미야 8:18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들려주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그랬다. 그들은 7일간 명절을 지켰고, 8일째에는 법규에 따라 축제를 열었다.

느헤미야 13:1
그날에 사람들이 모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백성의 귀에 들려주었다. …

요한계시록 1:3
복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사람, 듣는 사람들, 거기에 적힌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편 1: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시대에 성경을 소리 내어 읽었던 것은 그때에는 오늘처럼 책으로 발간되는 성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2와 사도행전 8:30의 경우처럼 홀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오늘날에도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대부분은 글로 적히기에 앞서 소리 나는 말로 선포되고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처음 들린 그 현장에 함께하게 됩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은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의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오늘의 이곳에서 수천 년 전의 그곳으로 한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냥 머리로만 묵상하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새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염두에 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2.2.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 1: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둥근지붕(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새로운 번역어인 “둥근지붕”이 종래의 번역어 “궁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궁창”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괄호 안에 넣어 두었을 뿐입니다.

시편 91:1
(사람에게 하는 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샷다이(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시편의 내용 중 누구를 상대로 말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괄호 안에 적어 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히브리어의 특별한 표현 "샷다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히브리어 표현 "야훼 츠바옷"을 "전능하신 여호와"(『개역』 전통의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한 것과 달리 "샷다이"는 고유명사처럼 음역했기 때문입니다.

> 전도서 9:10
> 손에 잡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일도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스올(죽은 사람들의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리로 그대가 가고 있어요.

"스올"도 "샷다이"처럼 고유명사처럼 음역하고 그 뜻 "죽은 사람들의 나라"를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 예레미야 2:1-2
> 1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 2 (하나님) "가서 이렇게 외쳐라,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고 있다, 너의 소녀 시절 애정을, 신혼 시절 사랑을! 네가 날 뒤따랐지,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에서!

예언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번갈아 나옵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부분에는 문장의 종결형으로 "-습니다"를 썼습니다. 『새한글』에서는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처럼 정중한 어법을 쓰도록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는 문장의 종결형으로 "-다"를 써서 권위 있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종결형의 차이로도 예언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말하는 주체를 괄호에 넣어 표시해 둔 것입니다.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예언자"와 "하나님"을 읽지 않도록 합니다.

큰 단락이나 작은 단락의 제목도 원어 성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이러합니다.

레위기 19장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시편 71장	노년에 도우심을 비는 기도
잠언 1:20-33	지혜가 외치다

사도행전 15:1-35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1-5 할례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다

2.3. 도치문을 주의하여 읽습니다.

원문의 어순을 통해서도 전달하려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드러나도록 『새한글』에는 원문의 어순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번역본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도치문이 자주 나옵니다. 시의 경우에 특히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끊어 읽기가 중요합니다. 대한성서공회 누리집에 들어 있는 『새한글』[2]에서는 그대로 행갈이를 하여 잘못 읽을 여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빨리 읽다 보면 앞에 나온 도치문의 뒷부분과 뒷 문장의 앞부분을 한꺼번에 붙여 읽게 되어 본문의 뜻이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5:8
오, 여호와여! 주님의 공의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해 주십시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는 앞 문장 "오, 여호와여! 주님의 공의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를 꾸미는 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인도해 주십시오" 뒤에 쉼표를 붙이고 "생각해서라도"에 마침표를 붙여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칫하면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해주십시오"로 죽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2.4. 천천히, 또박또박, 알맞게 끊어 읽습니다.

『새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다른 번역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뜻을 따라 알맞은 데서 끊어 읽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새한글』의 문장이 짧기 때문에,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문장 부호에 맞추거나 문장의 흐름에 따라 알맞은 데서 끊어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길어질 때는 엉뚱한 데서 끊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2)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읽기", https://www.bskorea.or.kr/KNT/index.php.

읽을 때는 잘못 끊어 읽더라도 스스로 생각하여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 줄 때 잘못 끊어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하게 하거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사무엘상 20:19
> 셋째 날에 곧장 내려가서 /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자네가 숨었던 곳으로 가서 / 에셀 돌 곁에 앉아 있게.

이 문장을 "셋째 날에 곧장 / 내려가서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자네가 /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 돌 곁에 앉아 있게."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끊어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2.5. 입체감 있게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마치 본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문학 유형, 내용, 분위기, 상황에 맞추어 등장인물의 감정까지 생각하며 입체감 있게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⑴ 문학 유형이나 상대에 맞추어 다르게 읽기

시편에서 혼잣말이 기도로 바뀔 때는 혼자 소리 내어 읽더라도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목소리를 조금 다르게 내어서 차이 나게 읽도록 하면 좋습니다. "혼잣말" 부분은 생각하듯이 보통 소리로 읽다가 "기도"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느낌이 들도록 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시편 23:1-4
> 1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 (혼잣말)
> 여호와가 나의 목자,
> 내게 모자람 없네.
> 2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 3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기도)
4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혼잣말"과 "기도"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원어 성서에는 없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를 3인칭으로 부르는 데서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홀로 생각하며 하는 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와는 달리 4절에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번역하지 않으려고 "주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결형도 혼잣말인 1-3절에서는 "-네"를 쓴 것과는 달리 4절에서는 "-습니다", "-됩니다"를 씁니다. "-요"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종결형입니다. 1절 첫머리의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은 이 시의 표제인데,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시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룹니다.『개역개정』에서는 이 표제를 대괄호 안에 넣었지만,『새한글』에서는 원어 성서를 따라 그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읽을 때 이 표제부터 소리 내어 읽도록 합니다.

시편 99:8-9
(기도)
8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혼내시는 분이시지만요.
(사람에게 하는 말)
9 여러분은 높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⑵ 말하는 주체에 맞추어 다르게 읽기

위 2.2에서 보기로 든 예레미야 2:1-2에서처럼 말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 두 사람 이상이 번갈아 말하는 본문은 목소리를 달리하여 읽어볼 만합니다. "예언자의 말"은 보통 소리로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엄숙하고 장중한 느낌이 들도록 소리를 높이고 천천히 강하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27-29
27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 버리셔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았다. 28 그러고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나한테서 썩 꺼져라! 조심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네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니까." 29 모세가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폐하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다."

이 석 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줄거리를 알려 주는 내레이터(narrator)와 파라오와 모세입니다. 그런 만큼 홀로 읽을 때는 세 가지 목소리로 읽도록 해 봅니다. 가정 예배에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세 사람이 각각 한 사람 역할을 맡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석자 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예배 중 성경 봉독도 세 사람이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아가 6:1-7
1 (무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갔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나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찾아볼게요.
2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려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발삼 정원으로요.
뜨락에서 양을 치려고요, 나리꽃을 따려고요.
3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
4 (남자)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벗님이여, 디르사처럼요!
고와요, 예루살렘처럼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
5 그대 두 눈을 나에게서 떼어 주세요.
나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 떼,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 같네요.
6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암양 떼 같아요.
그것들은 모두 쌍둥이를 낳고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7 쪼개 놓은 석류 같아요, 너울 뒤로 보이는 그대 뺨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마치 이 오늘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듣는 사람이 성경 본문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 보려는 데 있습니다.

⑶ 한 사람이 상반절을 읽고 여럿이 하반절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읽기

본문의 특수한 문학 형식에 맞추어 각 절의 하반절이 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상반절은 인도자가 읽고, 하반절은 회중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상반절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하반절은 다른 사람들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 내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6:1-26
1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신들의 신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3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주들의 주님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4 감사드리세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혼자서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5 감사드리세요, 솜씨 좋게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6 감사드리세요, 물 위에 땅을 펼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7 감사드리세요, 큰 빛들을 만드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8 감사드리세요, 해를 만들어 낮을 다스리도록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9 감사드리세요, 달과 별들을 만들어 밤을 다스리도록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0 감사드리세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1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2 감사드리세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리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3 감사드리세요, 홍해를 쫙 갈라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4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5 감사드리세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털어 내 버리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6 감사드리세요,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걷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7 감사드리세요, 큰 임금들을 물리쳐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8 감사드리세요, 강한 임금들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19 감사드리세요,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 시혼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0 감사드리세요, 바산 임금 옥을 죽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1 감사드리세요, 그들의 땅을 나누어 차지할 땅으로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2 감사드리세요,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차지할 땅을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3 감사드리세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4 감사드리세요, 우리를 적들에게서 건져 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5 감사드리세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26 여러분은 감사드리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덟 가지 복 말씀도 그렇게 인도자와 예배 참석자들, 또는 인도자와 성경 공부 참석자들, 또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상반절을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하반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3-12
3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4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5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6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7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8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9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10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11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2.6.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7. 예배 중 성경 봉독과 찬송을 연결하여 예배 순서를 더욱더 뜻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5
에스라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다. 그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펼치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예배 중 성경 봉독 시간에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새한글』을 읽을 때는 듣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서양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종교 개혁 전통에서 예배의 3대 구성 요소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찬송과 기도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직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하는 짧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서양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637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3]가 그러합니다.

떼제 찬송 "우리의 눈으로(Oculi nostri)"[4]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라

3) 참고, 박동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기도문", https://www.youtube.com/watch?v=CJbflmjrpcQ.
4) 참고, 박동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https://www.youtube.com/watch?v=Kd1ba_nmCu4.

틴어 가사를 제가 “우리의 두 눈은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는 주 말씀 듣네”로 조금 고쳐 예배 참석자들과 함께 불러 보곤 했습니다. 1990년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주님을 찬양하라. 떼제의 묵상 노래』에서는 이 찬송의 제목을 “우리는 예수를”로, 가사를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로 번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봉독이 끝나면 응답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응답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있습니다. 그 가락은 독일 <뷔르템베르그 주 개신교찬송가(*Evangelisches Gesangbuch. Ausgabe für die Evangelische Landeskirche in Württemberg)*> 181.3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음악가가 작사 작곡한 찬송으로는 류형선 선생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처럼『새한글』읽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순서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도 뜻깊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3.『새한글』을 재생산하는 방안

3.1. 듣는 성경, 듣고 보는 성경 만들기

홀로서나 여럿이 나누어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녹음기나 휴대전화기의 음성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녹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한 것을 나 스스로 때때로 들으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그 뜻을 거듭거듭 새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의 공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 내용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곁들여『새한글』의 한 말씀을 내가 읽어 주는 파일을 만들어,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일이나 합격이나 승진을 축하를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 심지어는 유명인의 음성을 입혀『새한글』의 일부라도 “듣는 성경”으로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3.2. 디지털 필사

『새한글』 일부 또는 전부를 한 마디 한 마디 소리 내어 읽어 가면서 컴퓨터 자판으로 옮겨 적어 파일로 만들어 봅니다. 복사하여 가져다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3.3. 말씀 모음집 만들기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새한글』 일부를 "나를 위한 말씀 모음"이나 "~을 위한 말씀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상수훈(마태복음 5-8장)이나 복음 가운데 한 권이나 시편 가운데 몇 장을 뽑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곁들어 나를 위한 성경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줄 성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새한글』을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표현하는 방안

4.1.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해 보기

우리가 성경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할 때는 어차피 각자 이해한 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조차도 어떤 점에서는 설교자가 본문을 이해해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알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성경 내용을 들려줍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 사람이 이해한 만큼 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와 표현으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나 교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새한글』도 사람마다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한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교역자나 선생이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런 때라도 하나

님이 본문을 통해 그에게 직접 알려 주시는 내용도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십수 년 전 어느 작은 교회의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하여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4.4.3에서 소개할 독일성서공회의 그림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비유를 12장의 그림으로 그려 놓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을 번역해서 전 교인들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참석자가 젖먹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 되었는데 조로 나누어 이 비유를 그림으로 글로 보고 들은 느낌을 한 마디씩 나누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창의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10대 남자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 셈이지요. 자신에게 익숙한 지방 말이나 표현으로 바꾸어 써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기로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5]과 『마가복음 전남 방언』[6]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 한 분은 시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시편 23편을 여러 지방 말로 바꾸어 써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보기로는 니카라과의 카르데날(E. Cardenal)의 <라틴 아메리카 시편(*Salmos*)>[7]이 있습니다.

4.2.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거나 글로 써 보기

『새한글』의 내용을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거나 글로 써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룻기의 내용을 내가 룻이 된 것으로 가정하고 간증하듯이 말하거나 글로 써 볼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신 "나귀"가 사람처럼 이야기하게 할 수 있고,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두 제자 관련 이야기는 "글로바"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바꾸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4.3. 『새한글』 독후감 노트, 묵상 노트, 기도 노트 만들기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느낀 점, 깨달은 점, 생각나는 점, 궁금한 점을

5) 제주향토문화연구소 편,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 (서울: 보이스사, 1981).
6) 임의진 역, 『마가복음 전남 방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5).
7) E. Cardenal, *Salmos* (Buenos Aires: Carlos Lohlé, 1969).

간단하게 적거나 짧게 기도하는 방식을『새한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새한글』의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스스로 읽은 뒤에 느낌이나 묵상한 내용이나 기도한 것을 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메모하거나 음성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4.4.『새한글』에 근거한 창의적인 활동

⑴ 요절 책갈피나 카드 만들기

『새한글』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아 예쁜 그림이나 사진을 곁들여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생일/생신 축하 카드와 연하장이나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 카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격려하는 자료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런 구절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보기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 시편 119:9
> 무엇으로 젊은이가 자신의 길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되지요.
>
> 시편 119:105
> 내 발에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 또 내 길에 빛입니다.
>
> 이사야 41:10
>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공의로운 구원의 오른팔로!
>
> 마가복음 10:14-15
> …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15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⑵ 좋아하는 구절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편지 써 보내기

문안 편지, 위로의 편지, 명절 안부 편지, 축하 편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전도 편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1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빌립보서 4:6-7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7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 줄 것입니다.

이사야 40:31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은 힘을 새로 받습니다.
치솟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 치면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⑶ 작은 그림성경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기

일찍이 1980년대에 독일성서공회에서는 성경 그림 이야기책을 이야기별로 한 권씩 만들어 출판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이웃 사랑을 실행한 사마리아 사람",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필립이 에티오피아 내

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포도밭 일꾼의 비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서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그림 성경 중 11장의 그림을 『새한글』 누가복음 15:11-32에 맞추어 보여 드리겠습니다.[8]



11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12 그 가운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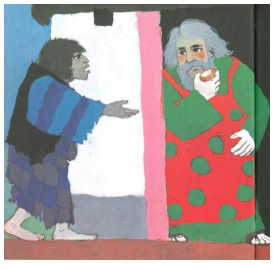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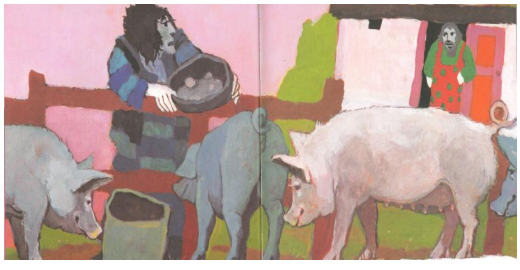
13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 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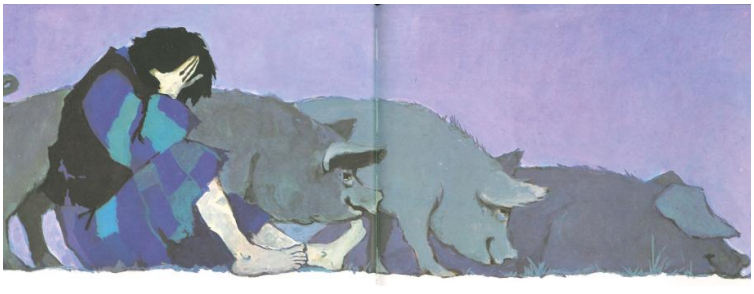
8) 아래 그림들은 Hellmut Haug, *Der verlorene Sohn*, Was uns die Bibel erzähl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0)에 수록된 Kees de Kort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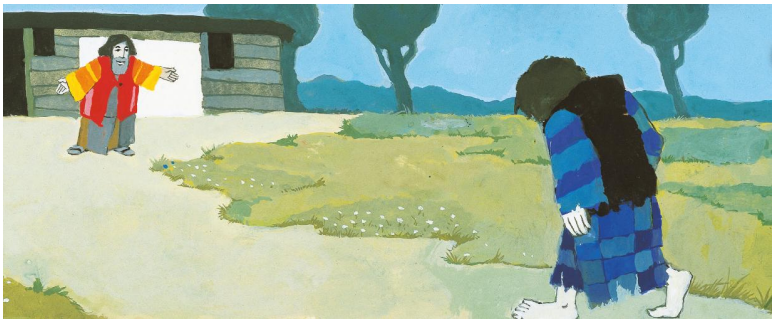
14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 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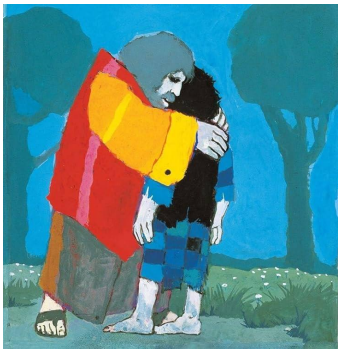
15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럽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7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 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18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19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
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
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
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
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 주어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25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6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27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을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29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 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31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32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성경에서 여러 단락을 뽑아 성인용 그림 성경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⑷ 성경 인물 이야기 지어 보기

성경에 사람들의 전기(傳記)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에 관한 내용을『새한글』에서 찾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 이야기를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바울 이야기 등입니

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에 볼리거(M. Bolliger)가 어린이용으로 이런 작은 이야기책을 여러 권 써낸 적이 있습니다.

4.5. 『새한글』 예술 창작

⑴ 연극 대본 만들어 공연하기

이미 1917년에 오스트리아의 츠바이크(S. Zweig, 1882-1942)는 예레미야를 희곡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국내 어느 신학교의 연극동아리에서는 해마다 성경 드라마를 공연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예언자의 이야기를 여러 번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⑵ 노랫말 짓기, 가락 붙이기

찬송마다 그 노랫말의 주제가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맘에 깊이 새겨진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가 가사도 만들어 보고 거기에 알맞게 가락을 붙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교회 학교에서는 요한복음 3:16에 가락을 붙여 어린이들이 부르도록 가르쳐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개역개정』의 한 말씀을 노랫말로 하고 거기에 단순한 가락을 붙여 돌림 노래로 만든 것을 하나 보기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31:15상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가 노랫말입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9)]

<그림 1> 채우진,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9) 참고 영상: 박동현, “채우진, 나의 앞날이(돌림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hjZLLjMKm_A&t=28s.

⑶『새한글』 판소리

이전에 명창 박동진 선생님(1916-2003)이 “성서 판소리(예수전)”를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명창 이영태 선생님(1965-)이 “재미난 성경 이야기 판소리” 방송도 하셨고, 심지어는 일반 교역자 가운데서도 새롭게 판소리를 성경 내용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새한글』의 일정 부분을 판소리로 만들어 공연해 볼 만합니다.

⑷『새한글』 랩

『새한글』의 일부를 랩으로 재구성하여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교회에서는『개역개정』을 본문으로 하여 성경 랩을 만들어 어린이나 전문 래퍼가 부르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새한글』은 문장이 짧고 현대어를 많이 썼으므로 랩으로 재구성하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5. 교회 학교나 가정에서『새한글』을 활용하는 방안

5.1.『새한글』 읽기 모임 만들기

일반 교인 가정이나 교회 학교의 각 부서(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나 기관(남선교회, 여전도회 등등)에서『새한글』 읽기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누리집 “새한글 자료실”에 올라온 글[10]에 따르면, 정읍중앙교회에서는 교회에 일찍 오는 초등부 어린이들은 주일 아침 예배 전 약 30분간 성경 통독을 하고, 청년부 학생들은 청년부 부서 예배 후 성경을 통독하고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연령층인 어른 성도들과 ‘소그룹 신앙훈련’ 시간을 통해『새한글』 신약을 통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읽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도『새한글』을 읽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새한글』을 읽을 때는 정해 둔 분량만큼『새한글』을 함께 소리 내어 읽든지 나누어 읽은 다음에 각자 자신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고,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짤막짤막하게 나누는 시간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감동이 된 구절은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옮겨 적어 보고 그 말씀에

10) 김용순, “『새한글성경』을 활용하며 얻는 유익한 점”, https://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37.

대한 느낌을 메모해 두는 등으로 집중해서 읽도록 안내합니다.

5.2.『새한글』 읽기 운동 벌이기

『새한글』 한 번 읽기를 함께 시작하여 얼마나 읽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다 읽으면 일독 증서와 함께 선물도 줍니다. 신구약 전체 읽기가 힘들면 우선 신약만 일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방 벽에 형제자매 이름을 죽 적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막대그래프로 그려 경쟁하도록 한 일이 생각납니다. 일정 기간(한 주간, 한 달, 한 계절, 한 해, 새해 첫 달, 수난주간+부활절, 대림절+성탄절, 여름성경학교, 가을맞이, 겨울성경학교 등) 동안『새한글』을 얼마나 부지런히 읽었는지 알아보고 많이 읽은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5.3.『새한글』 요절 암송 대회

『새한글』로도 요절 외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5.4.『새한글』 퀴즈대회 — 새로운 번역어, 음역 중심으로

십자말풀이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6.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에서『새한글』을 활용하는 방안

6.1. 성경 공부

⑴ 본문 정하기

『새한글』 본문을 인도자가 정해 주기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 또는 의논하여 정한 본문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새겨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절기에 맞는 본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아보는 것부터 함께해 볼 수 있습니다.

⑵ 본문 읽기

위 2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듣습니다.

⑶ 참여자들이 본문과 직접 씨름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참석자들이 직접 본문과 씨름하도록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려 하시는 말씀에 참석자들과 함께 귀 기울이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인도자의 본문 풀이보다는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자체가 참석자들과 인도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도자가 가르치고 참석자들은 배우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도자도 참석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⑷ 본문의 흐름, 짜임새, 중심 표현을 따라 본문의 뜻과 짜임새와 실천 방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한글』 본문의 흐름과 짜임새와 중심 표현에 맞추어 본문의 뜻과 가르침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성경 공부 시간에 하던 방식으로 따라 진행합니다.

⑸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기

이 과정에서 기존 번역본들 특히 『개역개정』과 『새한글』을 비교해 보면서 두 번역본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상호 보완하는 점을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⑹ 관련 자료들을 찾아 활용합니다.

본문 관련 음악, 그림, 소설, 시, 벽화, 건축물, 조각물 등도 최대로 활용합니다. 최근에 성서학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도 하고 해설도 하고 저서도 내신 분으로 신약학자로는 김학철 교수님, 구약학자로는 김진명 교수님이 계십니다. 2007년판 <취리히 성서 개정판>에 뒤따라 나온 성경 공부 안내서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6.2. 『새한글』을 본문으로 하는 전문적인 성경 연구, 설교 준비

⑴ 『새한글』 신구약에 서로 관련되어 나오는 구절을 찾아 공부하기, 설교하기

이전의 여러 번역본 가운데 관주(貫珠)를 활용하여 성경을 홀로 공부하거나 설교 준비를 해 온 전통을 『새한글』의 새로운 번역에서도 새롭게 되살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성서공회 누리집의 “새한글성경 읽기” 페이지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1]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민수기 6:25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 내 공의를 아시는 하나님!
비좁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시편 6:2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해졌으니까요.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 뼈가 어그러졌으니까요.

시편 9:13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겪는 괴로움을 봐 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끌어내 높여 주시는 주님!

시편 25:16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불쌍하니까요.

시편 26:11
그러나 나는, 흠 없이 걷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27:7
들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편 30:8
주님께,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빕니다.

시편 30:10
들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시편 31:9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 눈이 울분으로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그러합니다.

시편 51:1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크신 자비로 내 범죄를 지워 주십시오.

시편 56:1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싸움꾼이 온종일 나를 괴롭힙니다.

시편 57:1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로 이 몸이 피했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내가 피하니까요,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시편 67:1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

시편 86:3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 내가 온종일 부르짖습니다.

시편 86:16
내게로 향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여자종의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시편 90:13
돌아오십시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119:29
거짓된 길은 나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119:58
나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시편 119:132
내게로 향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요.

시편 123:3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실컷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33:2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희망을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어려울 때에.

요엘 2:17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몫인 백성을 내주어 … "

마태복음 15:22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7:15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뇌전증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속으로 또 여러 번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마태복음 20:30-31
30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두 명이 길옆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31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마가복음 10:47-48
47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8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더욱 크게 소리쳐 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7:12-13
12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피부병 앓는 사람 열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13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35-39
35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옆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36 그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37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고 알려 주었다. 38 그러자 그는 부르짖어 말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쳐 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 경우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전체를 몇 가지로 묶어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주체로, 구약에서는 시편의 기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신약에서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마 20:30-31) 또는 홀로(눅 18:35-38), 심한피부병 앓는 사람 열 명(눅 17:12),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마 15:22), 뇌전증에 시달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마 17:15)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두고서는 자신이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독특하게도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의 어려운 상황을 아룁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하거나(욜 2:17),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민 6:25).

기도하는 까닭은 질병(시 6:2; 마 17:15; 눅 17:12-13), 장애(마 20:30-31; 눅 18:35-39), 괴로움(시 4:1), 불안(시 31:9), 박해(시 57:1), 자신의 죄(시 51:1)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는 주기도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 인터넷판 2025년 9월 25일자에 게재된 연재물 [기막힌 그 말씀] <10>,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를 노랫말로 하는 찬송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632장입니다.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이 찬송을 거듭 부르면 큰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솟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이 차례로 한 마디씩 기도하면 회중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며 응답하는 식의 기도 모임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기 2] “한결같은 사랑”

출애굽기 15:13

주님은 주님이 구해 내신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19

이집트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의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20:14-15

14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네가 나에게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죽는다고 하세. 15 그래도 나의 집에 대한 자네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네가 끊어 버리는 일은 영원히 없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 하나하나를 이 땅 위에서 끊어 버리실 때도.”

사무엘하 9:3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의 사람이 있소?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

욥기 6:14

절망한 사람에게는 벗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네. …

시편 13:5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

11) 박동현, [기막힌 그 말씀] <10>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기독공보」 2025. 9. 25.,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10808181772 (2026. 3. 2.).

시편 33:5
…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시편 59:10
나의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맞아 주시는구나. …

시편 63: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거든요. …

시편 66:20
…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합니다.

시편 89:1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

시편 90:14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

시편 119:88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

시편 138:8
…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

시편 143:8
아침에 내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야기를. …

시편 147:11
여호와는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을.

호세아 6:6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디모데전서 1:13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 시건방진 사람이었네.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네.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유다서 1:21
…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면서 기다리십시오.

유다서 1:22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이 여러 절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은 것끼리 묶어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주체가 사람이기도 하지만(삼상 20:15; 욥 6:14; 호 6:6; 유 1:22),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출 15:13; 민 14:19)도 있고 개인(시 13:5등)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입에 올리는 계기로는 고백(시 13:5; 63:3), 간증(시 59:10; 66:20; 딤전 1:13), 찬양(시 33:5; 89:1), 기도(시 143:8), 권유(유 1:21) 등이 있습니다.

[보기 3] "돌아오라"
역대하 30:6
…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를 벗어나 남은 사람들에게로 그분이 돌아오실 겁니다.

이사야 31:6
너희는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세게 반항했던 하나님에게로!

이사야 44:22
내가 너의 죄악들을 구름처럼, 너의 죄들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다. 돌아와라, 나에게로! 내가 너를 되샀으니."

이사야 55:7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세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가엾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니까요.

예레미야 3:6-10

6 (예언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였습니다. (하나님) "너는 보았느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는 높은 산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놀아났다. 7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이런 온갖 짓을 한 뒤에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8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놀아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는 것을 유다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가서 자신도 놀아났다. 9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10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예레미야 3:12

… '돌아오너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아!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내가 어두운 얼굴빛으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결같거든.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나는 화를 영원토록 품지는 않는다.

예레미야 3:14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나야말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시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끌어낼 것이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예레미야 3:22

(하나님)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 주겠다." (백성)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예레미야 4:1

(하나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면,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네가 너의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치워 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호세아 14:1-2
1 (예언자)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로! 그대가
그대 자신의 잘못에 걸려 넘어졌으니까요. 2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가지
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

요엘 2:12
(하나님) "이제라도 … 돌아와라, 나에게로! 너희 마음을 다해, 금식하
고 울고 슬퍼하면서.

스가랴 1:3-4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부디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 너희 악한 행동에서부터! 그러나 그들
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말라기 3:7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정들에서 벗어났고 그것들
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
에게로! —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너희는 '무
엇을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16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누가복음 15:17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 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누가복음 15:25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
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14:15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
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
분이 이런 쓸데없는 일에서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
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0:21
유대아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16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돌아오라"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2 상반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한꺼번에 써서 매우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서 뒤돌아 나간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돌아서서 나가서 저지른 온갖 잘못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읽으면, 개인의 돌아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돌아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공보」 인터넷판 2025년 8월 28일자에 게재된 연재물 [기막힌 그 말씀] <8> "돌아 오너라"[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4]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10-14
10 (예언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빌론에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나의 좋은 말이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11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평화를 이루려는 계획이지 재난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앞날을 허락해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12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겠다. 13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묻는다고 하자. 14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모든 민족한테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 보낸 모든 곳에서부터! —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 주겠다, 거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바로 그곳으로!"

12) 박동현, [기막힌 그 말씀] <8> "돌아 오너라", 「한국기독공보」 2025. 8. 28.,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10775297235 (2026. 3. 2.).

문장의 표현 형식만을 두고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 이러저러한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새한글』에서는 원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고정된 표현에서 똑똑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입니다. 둘 다 구약성서에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을 수시로 밝힙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무개 사람의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세계 교회 2000년 역사와 한국 교회 140년 역사에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별하여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 맘대로 풀이하여 자신의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를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2:17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저 많은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 고린도후서 4:2
>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⑵『새한글』 본문의 짜임새와 문학적 기법에 나타난 메시지 찾아내기

한 단락 안에서 말하는 주체가 여럿 등장하고 바뀌는 경우에 그러한 짜임새와 문학적 기법 자체에서 특별한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

차대구법이 쓰인 경우를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보기 1] 시편 2:10
그러니 이제, 오, 임금님들, 슬기롭게 처신하세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오, 땅의 재판관님들!

[보기 2] 예레미야 8:19-22
19 저기, 딸 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라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백성)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요? 시온의 임금이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 "왜 그들은 우상들을 가지고서 나를 노엽게 하는가? 다른 나라의 헛것들을 가지고 그리하는가?"
20 (백성) "곡식걷이가 끝나고 여름이 다 갔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21 (예언자) 딸 나의 백성이 부서져서 나도 부서졌구나.
슬픔에 빠졌구나. 끔찍하다는 느낌이 나를 덮쳤구나.
22 약품이 길르앗에 없는가?
의사가 거기에 없는가?
왜 딸 나의 백성의 상처에서
새살이 오르지 않는가?

주석가들은 이 단락이 9:1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8장 끝 절까지만 읽어도 말하는 주체가 예언자, 백성, 하나님, 백성, 예언자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시작과 끝에 나오고, 그 안쪽으로 백성의 말이 앞뒤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말이 둘러싸고 하나님 말씀과 백성의 말을 예언자의 말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짜임새를 수사학에서는 동심원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탄식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백성의 탄식과 예언자의 탄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겪는 괴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백성이 고통에 빠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예언자 또한 탄식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양쪽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양쪽의 탄식을 들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이 단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전체,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를 두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예언자의 탄식은 그저 절망과 좌절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구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7. 그 밖에 『새한글』의 새로운 점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7.1. 『새한글』의 주기도, 신약의 축복 기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 자주 사용하기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빕니다.
10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11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12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 준 것처럼요.
13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 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고린도후서 13:1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민수기 6:23-26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줄 때는 이렇게 말해라.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5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26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7.2. 『새한글』의 그 밖의 새로운 점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짧은 문장, 쉬운 표현, 다양한 문체와 종결형, 높임말, 친밀감 있는 어법을

자주 쓰도록 합니다. 또 '둥근천장(궁창)', '넘는명절(유월절)', '다태우는제물(번제물)', '거룩거룩한곳(지성소)'처럼 청소년들이나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말, '샌들', '트럼펫', '다이아몬드', '알로에'처럼 널리 쓰이는 외래어, '이주민'처럼 현대 사회 상황에 맞춘 표현 등을 널리 쓸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 '뇌전증', 상대를 배려하는 어법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 자료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번역어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할 부분은 되도록 문장의 앞에 두는 도치법, 다양한 문체와 종결형, 평행법이나 대구법 같은 수사법, 다양한 문학 형식을 써서 생동감 있게 말하고 글 쓰는 법도 익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무엇보다도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바울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높임말을 씁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 출애굽기 32:21-24
> 21 모세가 아론에게 따졌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큰 잘못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22 아론이 둘러댔다. "이보시게,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게. 아우님도 이 백성을 아시지 않는가? 이들은 쉽게 악한 짓을 하지. 23 그들이 나에게 부탁하더군.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니까요.' 24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 '누구에게든 금이 있으면 빼내 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가져왔더라고. 그것을 내가 불에 던져 넣었어.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온 걸세."

7.3. 『새한글』에서 말하는 법, 글쓰는 법, 사람 존중하는 법을 배워서 일상 언어 생활의 수준을 드높입니다.

⑴ 설교 원고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원고를 작성할 때, 문장을 짧게 합니다. 부문장은 되도록 하나로 줄입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담도록 애씁니다.

⑵ 여러 가지 문학 형식, 문체, 종결형을 알맞게 씁니다.

⑶ 차별과 배제와 분열의 언어 대신 이해와 배려와 통합의 언어를 씁니다.

⑷ 소통에 더욱더 힘쓰는 습관을 들이기에 힘씁니다.

> 고린도전서 14:6-9
> 6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

> 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7 마찬가지로 피리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피리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8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까? 9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8. 나오는 말

『새한글』은 21세기 한국어 사용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려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잘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런 시간도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방도를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성경 번역, 성경 읽기, 성경의 창조적 활용, 성경 공부.
The New Korean Translation, Bible Translation, Bible Reading, Creative Utilizing of the Bible, Bible Study.

<참고문헌>(References)

김용순, “『새한글성경』을 활용하며 얻는 유익한 점”, https://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37.

대한성서공회 누리집의 『새한글성경』 관련 부분(“새한글성경 읽기”, “새한글성경 영상게시판”, “새한글성경 카탈로그”,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bskorea.or.kr/index_4.php.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새한글성경의 고유명사 새 음역 목록”, 미간행 원고.

박동현,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54 (2026. 3. 2.)

박동현, “『새한글성경』의 특징과 의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특강: 1학년 B반 구약석의방법론[담당 교수: 하경택], 2025. 10. 21.), 미간행 원고.

박동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https://www.youtube.com/watch?v=Kd1ba_nmCu4.

박동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기도문”, https://www.youtube.com/watch?v=CJbflmjrpcQ.

박동현, “채우진,나의 앞날이(돌림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hjZLLjMKm_A&t=28s.

이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 「성경원문연구」 57 (2025. 10.), 262-291.

이승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성경원문연구」 57 (2025. 10.), 241-261.

임의진 역, 『마가복음 전남 방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5.

제주향토문화연구소 편,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 서울: 보이스사, 1981.

Cardenal, E., *Salmos*, Buenos Aires: Carlos Lohlé, 1969.

Haug, H., *Der verlorene Sohn*, Was uns die Bibel erzähl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0.

<Abstract>

User Guide to the New Korean Translation: In the Contexts of Devotion, Ministry, and Mission

Donghyun Park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New Korean Translation, published in 2024 is so different from the existing Korean Bibles that a kind of manual is needed. This article tries to offer some practical suggestions on how to use it effectively.

Most important is to read the New Korean Translation aloud. The Bible is originally to read aloud before the congregation (Neh 8:3, 8, 18; 13:1; Luk 4:16; Rev 1:3) and even alone (Psa 1:2; Act 8:30). Moreover, the New Korean Translation ist especially fitted to rea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literary character and structure of the text (narrative, tale, decree, debate, poem, prophecy, antiphony etc.) and according to speakers (narrator, God, patriarch, Moses, people, prophet, judge, king, etc.)

Secondly, it is meaningful to reproduce the text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in diverse forms (digital rewriting of the whole Bible, recording or/and producing video of reading the texts etc.) using multimedia me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l kinds of reproduction can be useful materials for everyday life of Christians and also for education, pastoral care and mission of the church.

Thirdly, it is recommended to recite or reformulate creatively the content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in one's own words. Biblical drama, photos, novels, poems, comics, songs, and picture/illustrated books can be produced.

Fourthly, leaders of local churches can encourage the church-members and offer programmes for them, above all the children and youths to engage in reading and using the Bible on their own initiative.

Fifthly, it would be helpful for those who lead the Bible study or are preparing sermons, if they give heed to the new expression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Sixthly,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tudying the Bible alone or in group can

profit by paying attention especially to the inverted sentence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biblical texts in order to make the intent of the text still clearer.

Seventhly, from other new feature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readers can learn to make better their own habit of dialog, sermon, speech, discussion, debate and everyday life!